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3권 34호(다해) 2010-7-18

[묵상]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
<윌리엄 홀, 수채화, 1906년, 런던>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마르타.

일손이 부족한 마르타
동생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뜰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언니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마르타는
채 깨닫지 못한 마리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사실 봉사는 말씀의 힘에서 나오기에
필요한 건 하나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봉사가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되듯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 말씀 역시
죽은 말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리아도 열심히 시중들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썩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사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환 야고보
	(생) 홍석인 체칠리아, 조옥중 사도 요한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 조지 가보라,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김중환 야고보, 박종남 마리아, 김시형 시릴로, 이금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나향숙, 박문영 안젤라
	(생) 고규재 체칠리아, 엄크리스 벨라도, 마크 안, 박다빈 이레네, 박세빈 이베타, 김성택 프란치스코, 유철희 바오로 & 현자 안나 가정, 김미성 에스텔, 박명순 안나, 정정현 베네딕다, 홍석인 체칠리아, 이장환 마르띠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8,1-10

화답송 ○주여, 당신 장막에 묵을 이 누구오리까!
 <전례서가 84 연중 제16주일 다해>
 ○허물없이 살아가며 의를 하는 이,
 마음속에 진리를 품은 이,
 제 혀로 하리질 아니하는 사람이외다. ○
 ○벗에게 해로운 일 아니하는 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
 약한 자를 눈아래 얹어 보아도,
 주를 섬기는 이면 존경하는 그 사람이외다. ○
 ○길미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는 이,
 무죄한 이 다칠세라 뇌물 받지않는 이,
 이같이 하는 사람은
 쓰러질 리 없으오리다. ○

제 2독서 콜로새(Colossians) 1,24-2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Luke) 10,38-42

영성제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64	182
봉헌	368	233
성체	주 품에	287
파견	384	198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태중 아이들의 존엄성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예레 1,5)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 계획의 한 부분이다. 옴은 깊은 고통 속에서, 놀랍게도 그의 육체를 태중에서 만드신 하느님의 업적을 묵상한다.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그의 생명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시어 나를 없애버리시렵니까? 이 몸을 진흙으로 빚으셨음을 잊지 마소서. 어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는 이 몸을 짓갈이 쏘으시어 목처럼 엉기게 하였고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쉬는 것까지 보살피 주셨습니다." (욥 10,8-12) 시편 속에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을 경외하고 감탄하는 표현들이 거듭거듭 나온다.

생명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과정의 단 한 순간이라도 창조주의 지혜롭고 사랑에 찬 활동에서 분리되어 인간 번식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일곱 형제들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시며, 죽음을 넘어서는 새생명이 지닌 희망의 기초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 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느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2마카 7,22-23)

45. 신약의 계시는 생명이 그 출발 때부터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확인한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고 기뻐하는 말속에는 다산과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루카 1,25) 그리고 더 나아가 동정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그들의 태중에 있던 두 아기의 만남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가치가 찬미된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아기들이다. 이 두 아기의 만남 안에서, 인간들 속으로 오신 하느님 아들의 구원 능력이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성 암브로시오가 말하듯이, "마리아의 도착과 주님 혈존의 축복들이 속속 선포된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여인, 마르타와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신 마르타가 환대하고, 이미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라자로의 자매들이기에 그 집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나고그에서 토라를 들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곳에 들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녀들에게도 하느님 말씀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태도는 신앙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우리의 정신입니다.

복음에서 두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 발치에서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있었고, 마르타는 예수님을 환대하려고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입니다. 화가 난 마르타가 예수님께 자기의 편이 되어 마리아를 혼내시라고 투정부립니다. 마르타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른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이지, 환대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제 몫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예수님 챙기기에 바쁩니다.

신앙인들이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마리아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행동입니다. 마르타처럼 성당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데만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신앙인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것입니다. 전례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과 독서를 듣고

강론인 말씀의 설교를 들으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청원과 기도가 바쳐지며, 생활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혼자 외딴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 사명을 받는 올리브 동산에서도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결국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깊은 침묵 속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행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자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행위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듣는 자세는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진위를 구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듣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며,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의 모습 속에 진정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서울대교구 선교전례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술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권순길 체첼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새 회기를 맞아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가입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참여 하여 본당 발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사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2010~2011 임기 첫 사목상임위

새 임기를 맞은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총회가 오늘 주일 낮미사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월18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본당 신부님 휴가차 일시 귀국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차 7월22일 (목)부터 8월9일(월)까지 한국에 일시 귀국하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 이 기간 중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는 김혁태 베드로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목요일 오전 9시 미사는 없습니다.(저녁미사 있음)

◆ 배론청년회 봉사자를 찾습니다.

- 대상 : 본당 체육행사 및 청년회 모임 봉사자
- 연락 : 청년회장 이상용 페트릭 엘리야 ☎(310)650-6057

◆ 예비자 교리반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문의 : 복음화 분과 김충섭 마틴 위원장 ☎(213)820-7636

◆ 백삼위 골프회 8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8월14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론드라 팍 골프코스
- 문의 : 정충로 안토니오 골프회장 ☎(310)991-6966

◆ 2010년 제23차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주제 :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사도 2,18)
- 일시 : 8월21(토) 오전 8시~오후 10시
22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Marsee 오디터리엄 (16007 크렌셔 블러바드, 토런스)
- 강사 :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회장), 허윤석 세례자 요한 신부(한국 가톨릭 전례학회 사무처장),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LA 성삼 한인천주교회 주임)
- 참가비 : \$25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주일 아침미사 성가대(아도라테 성가대) 단원 모집

- 성가를 통해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미사를 함께 드릴수 있는 관심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연락처 : 김비비안나 ☎(310)542-0496

◆ 제66차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 신청

- 일시 : 9월3일(금)~5일(주일)
- 장소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 등록비 : \$ 50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김희연 루시아 ☎(310)347-1665

◆ 사우스베이 마라톤 동호회에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누구나 환영, 걷기부터 시작
- 장소 : Hathaway Park(25600 Pennsylvania Av. 로미타)
- 연락처 : 최현찬 안드레아 코치 ☎(310)257-1996

◆ 상장애식서와 상본(성모님) 콜링카드가 새로 준비됐습니다.

- 상장애식서 : 한글-영어 합본 연도(한국어에 서툰 영어세대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기도서입니다.) \$20
- 콜링카드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20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7월18일(주일) : 토런스 남1반(회덮밥 \$3)
- 7월25일(주일) : 토런스 북1반(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국세찬	권태만	김기정	김낙기	김성일
	김양금	김옥보	김우용	김원호	김준호	나경흠
	노새미	모은기	민소예	박근식	박정자	박종만
	방정복	오진	이경용	이숙화	이영희	이용식
	이일길	이효세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정훈모
	조윤영	한혜숙	황지영	한길선	례	
	합계 : \$2,905					
미사헌금 : \$2,600						

성전헌금	고천용	국세찬	권태만	김기정	김낙기	김성일
	김양금	김옥보	김우용	김원호	김준호	나경흠
	노새미	모은기	민소예	방정복	이경용	이숙화
	이영희	이용식	이효세	정규숙	정열모	정지숙
	정훈모	한혜숙	황지영	한길선	레	
합계 : \$2,065						

공지사항

◆ 첫영성체/신영세자/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 대상 : 지난 5월 견진성사, 6월 첫영성체 예식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찾아가세요.

◆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9:30am 한국어) 있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 낮 12시 성당 출발
7 25일(주일) 오후 5시 성당 도착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주일학교 티셔츠, 미사헌금
- 추가등록 : 오늘 주일(18일)까지 * 참가비 \$195

남가주 소식

◆ '청실 홍실' 제3차 만남의 장

- 일시 : 오늘 주일(18일) 오후 5시
- 장소 : 옥스포드 호텔, LA
- 신청 및 문의 : 남가주 한인 종신부제협의회
시몬 정 사무국장 ☎(714)530-3111

◆ 이나시오 영성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6일(금)~10일(화)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피정의 집
- 주제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오 5,3)
- 지도 : 이영찬 사도 요한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30 * 문의 : 김레지나 ☎(310)748-9710

◆ 평화방송/평화신문 선교체험사례 공모

선교체험사례 공모는 특히 본당 내 여러 단체와 팀으로 활동하며 예비신자들을 입교시키거나 냉담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고 모범으로 삼고자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단체와 팀으로 선교한 감동적인 이야기
- 응모 대상 : 본당 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및 팀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정도(A4 3~4장)
- 응모마감 : 8월 27일(금)
- 접수 : 전자우편 missionary@seoul.catholic.or.kr
- 수상자 발표 : 2010년 10월 3일자 평화신문
- 시상식 : 10월 9일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선교대회
- 시상내역 : 대상-상금 200만원, 우수상-상금 100만원,
장려상-상금 70만원
- 기타 : 신청서는 사목국 누리방 (www.samok.or.kr)에서 내려받아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단체 모임

새회기 첫 사목상임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가정의 날	
-------	--

노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3(화)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이근태 세르지오 530-7702 7/18(주일) 오후 1시, 토런스파크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신덕래 데레사 494-1390 7/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0-7798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마틴&크리스티나 533-1435 7/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4(일) 오후5시, 할리웃보울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7/17(토)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김용 스테파노 378-4183 7/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7/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전하현 마리아 793-7733 7/9(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7/18(일) 야우회 델슨 파
	3	대전희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711(일) 야외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2 반과 합동 반모임 장소 : 샌 피드로 파
P. V. 김명재 아가다 541-3687	1	미정	P.V. 1,2,3,4 반 합동 반모임 7/10(토) 오전 10시, 라이언 파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

쫄쫄! 고백

고백의 기도 때 가슴을 '세번' 치는 이유는?

☞ 미사때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세번' 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위대한 성인들은 자신이 '큰죄인'임을 고백하며 자책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우리의 죄스러움에 대한 외적 표현이 시대를 거치면서 기도 안에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는 행위가 잘못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행해지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사 서두에 '제 탓이요'를 외치는데, 이는 죄의 고백



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이 용서와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 자세를 나타냅니다.

가슴을 '세 번'치는 데에는 우리가 세가지로, 즉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후회하면서 아파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에서 모두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의기도 때에 가슴을 세 번 치는 것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회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미사때 여성들이 미사보를 쓰는 이유는?

여성들이 미사보를 쓰는 이유는 치장한 머리를 가림으로써 겸손한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이지요.

유다사회에서 여자가 쓰는 베일은 자신이 결혼한 신분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남편에 대한 순종을 상징하였습니다. 로마의 여성들도 약혼한 순간부터 베일을 썼지요.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게 된 것은 사도 바오로의 권고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이후 교회 전례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교부들은 여성들의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강조하고, 대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느님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평생을 동정녀로 지내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발전하지요.

즉 4세기경부터 그리스도와 맺은 영적 혼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교들이 베일을 축성하여 동정녀들에게 씌어준

것입니다. 이후 수녀들이 착용하는 베일 역시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사보는 동정녀나 수도자의 베일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영적 혼인을 드러내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미사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생각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지요. 사도 바오로는 교회와 각 신자들을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오직 하나가 되기로 약혼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실제로 남성에게는 너무나 어색하지요. 이런 이유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사보를 꼭 써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생각하면 안될까요? 하느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고 또한 더욱 경건함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전통이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미사보를 쓰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강요하는 바람에 고사(告祀)를 지냈습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거래처나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막상 지내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사(告祀)란 원래 음력 10월 상달에 행하는 가신(家神), 즉 가정을 보살펴준다는 여러 신(神)에 대한 종합적인 의례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 개업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그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또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이지요. 이런 경우 우리 천주교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축복예식이 있습니다. 새로이 개업을 했든가, 공장을 지었든가 했을 때, 신부님을 모시고 또 교우들과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복예식을 거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축복도 받고 이웃에게 전교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물론 조촐하게 음식도 장만하여 함께 나누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 서울 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